

##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오정아<sup>a</sup> · 남부현<sup>b\*</sup>

<sup>a</sup>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sup>b</sup>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충청지역의 광역시와 군소도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결정성, 목적성, 확산성, 준비성, 독립성)들이 관계적 요인(부모, 교사, 친구)과 학교적응 요인(학교생활, 수업, 환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55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52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467부를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의 진로태도성숙과 관계적·학교적응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태도성숙과 관계적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친구관계가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에 그리고 학교생활과 수업이 진로준비성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관계적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친구관계가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고 부모와 교사관계는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친구요인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이다. 셋째,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이 중학생의 진로결정성과 준비성 그리고 독립성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변인은 친구이며 학교생

\* 교신저자(남부현)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namx0015@hotmail.com

활이 이들의 진로준비성과 독립성 성숙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학교 내 진로교육 강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진로태도성숙, 관계적 요인, 학교적응 요인

## 1. 서론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전환되는 준비단계로 합리적인 진로선택은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김병숙 & 손민아, 2005).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은 초기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이현주, 1998),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전문가들은(Super, 1955; Tuckman, 1974; Sharf, 2006), 특히, 중학교시기에 학생들은 진로탐색과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인의 능력은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함승연,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Super(1955)는 진로발달은 인간의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발달시기마다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진로태도(career attitude)'라 명명하였다. 즉 '진로태도'는 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며 독립적으로 발달과업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 정도를 의미한다(김재호 & 정철영, 2006).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 '진로태도'를 '진로태도성숙'이나 '진로성숙'으로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진로태도성숙'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진로태도성숙을 위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특정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검토하며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되고 안내되어야 한다(김충기, 2003).

최근까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을 조사한 연구들은 개인적 변인(김봉환, 1997; 이현주, 1998), 부모 관련변인(강란혜 & 이미정, 2011; 박은주 & 금명자, 2012; 정경미, 2009; 이기학 외, 2004; 이현주, 1998), 그리고 학교 변인(소연희, 2011)들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부분적으로 청소년과 부모 또는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자아존중감(민경애 외, 2011; 최수미, 2009; 이기학 & 한종철, 1997)이 높고 진로장벽(박은주 & 금명자, 2012; 고복순 & 김영혜, 2011; 한귀녀 외, 2009)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적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성취 지향적이고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한 경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부모의 지지적 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와 교사-학생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 김의철, 2004). 교사와의 적극적 지원과 친밀한 관계는 학생의 학습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이지혜, 2013). 또한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경희 & 윤미현, 2011).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래 외, 2012; 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하지만 최근까지 선행연구들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각 하위 변인들을 나누어서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적응 요인 등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중학생의 진로교육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김진숙, 2013; 교육부, 2013)에 이들과 가장 가까워서 일상생활을 함

게하는 주요 주변인들(부모, 교사, 친구)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적응 요인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그 관계정도와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 학생의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들이 이들의 진로태도성숙 하위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관계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차별화된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 진로연수, 진로지도 및 상담을 제공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요인과 학교적응 요인 및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관계적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관계적 요인과 학교적응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 2. 선행연구 고찰

### 2.1. 진로태도성숙

Crites(1971)은 진로태도성숙을 직업준비 정도로 보았고 개인이 일관되게 현실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에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연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장석민 외, 1991). 또한 Super(1974)

는 자신이 속한 발달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의 정도를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으로 보았고, 진로발달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다섯 단계의 진로발달은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과업이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다음 단계로의 진로발달이 촉진되고 이행된다. 특히 진로탐색기에 속한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를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함승연, 2012). 이 시기는 미래의 직업분야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발휘하고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선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진로탐색 경험을 통해 직로계획 뿐만 아니라 직업관과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기 때문에 진로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김충기, 2003).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함양된 진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것에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최초의 검사도구는 Crites(1973)에 의해 개발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로 그 하위요인에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 구성되어 활용하였다(장석민 외, 1991). Crites(1973)의 이러한 하위요인을 토대로 이기학(1997)은 한국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을 조사하기 위해 결정성·목적성·확신성·준비성·독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정성은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가를, 목적성은 진로나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성취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 그리고 계획의 정도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의 5개 하위변인

(결정성·목적성·확신성·준비성·독립성)을 중심으로 관계적 및 학교 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

### 2.2.1. 관계적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부모 및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재호 & 정철영, 2006; 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청소년들은 부모·가족·친구·교사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로부터 애정이나 신뢰, 정보, 물질적 원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과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금지현, 2012; 이재희 & 이지민, 2012). 이러한 지원과 지지를 통해 청소년들은 개인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주변인들의 관계적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이경희 & 윤미현, 2011; 이재희 & 이지민, 2012; 조미형 외, 2006).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지지는 개인의 진로태도성숙에 큰 원천이 된다고 한다(Betz, 1989; 김도현 외, 2012; 이경희 & 윤미현, 2011).

진로포부나 성취동기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중요한 타자들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특히, Farmer(1985)와 Rooney(1983)는 부모의 지지가 개인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예언적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지적인 대인 관계망의 중요성으로 Burke 등(1995)은 가족 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그리고 진로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정혜정 & 최인실, 2004 재인용). 이처럼, 청소년 진로발달에서 가족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기학 등(2004)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심리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의미를 높이 부

여할수록(박은주 & 금명자, 2011)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이경희와 윤미현(2011)은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및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목적성과 확신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친구관계에 따라서는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안정된 관계를 맺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고 진로에 대한 목적도 뚜렷하며 진로확신성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조미형 등(2006)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남·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학생이 주요 주변인(부모, 교사, 친구)과의 관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2.2. 학교적응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학생들의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 규칙이나 질서 등에 적절하게 행동하며 교사와 친구 간의 관계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흥미를 잃고 학교이탈이나 학업중도포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교부적응이라고 한다(김용래, 2000; 민영순, 1978).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도취도가 높고 문제행동이 낮으며 긍정적인 진로태도성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지연, 2007; Lynch & Cicchetti, 1997). 조미형 등(2006)은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적응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혜래(2007)와 조미형 등(2006)의 연구결과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 학교수업,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관계적 요인 및 진로태도성숙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충청지역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와 2개의 군소도시 지역에 소재한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의표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총 5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고 그 중 52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67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3.2. 측정도구

##### 3.2.1. 진로태도성숙도

본 연구는 진로태도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하위요인들이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5점=매우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결정성 .89, 목적성 .83, 확신성 .79, 준비성 .82, 독립성 .77로 나타났다.

### 3.2.2. 관계적 요인

관계적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Nolten (1994)의 Student Social Scale을 이미라(2000)가 번안하고 수정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은 부모, 교사, 친구지지로 각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1; .92; .93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5점=매우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2.3. 학교적응 요인

학교적응으로 김용래(2000)가 제작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하위변인들은 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적응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각각 10·8·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7; .78; .9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5점=매우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로태도성숙과 관계적 및 학교적응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진로태도성숙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

〈표 1〉 관계적 요인·환경적 요인과 진로태도성숙의 상관관계

(n=467)

	부모 관계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생활	학교 수업	학교 환경	진로 결정성	진로 목적성	진로 확신성	진로 준비성	진로 독립성
①	1.00										
②	.43**	1.00									
③	.39**	.34**	1.00								
④	.27**	.38**	.22**	1.00							
⑤	.35**	.30**	.26**	.49**	1.00						
⑥	.35**	.37**	.26**	.50**	.59**	1.00					
⑦	.19**	.18**	.06	.16**	.18**	.16**	1.00				
⑧	.06	.26**	.08	-.01	-.09	-.10*	.25**	1.00			
⑨	.19**	.15**	.08	.13**	.16**	.15**	.47**	.21**	1.00		
⑩	.15**	.12**	.25**	.30**	.30**	.28**	.25**	-.05	.09*	1.00	
⑪	.22**	.22**	.27**	.28**	.17**	.13**	.27**	.11**	.16**	.31**	1.00
평균		3.48	3.53	3.26	2.72	2.75	3.48	3.43	3.08	3.16	3.76
표준 편차		.75	.76	.76	.81	.84	.97	.87	.75	.82	.74

\* $p < .05$ , \*\* $p < .01$ , \*\*\* $p < .001$  ①부모지지 ②교사지지 ③친구지지 ④학교생활 ⑤학교수업  
⑥학교환경 ⑦진로결정성 ⑧진로목적성 ⑨진로확신성 ⑩진로준비성 ⑪진로독립성

본 연구의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과의 상관계수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진로 목적성에서는 교사관계( $r=.26, p<.01$ )가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준비성에는 학교수업( $r=.30, p<.01$ ), 학교환경( $r=.28, p<.01$ )과 친구관계( $r=.25, p<.01$ )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진로독립성은 친구관계( $r=.27, p<.01$ )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r=.28, p<.01$ )과 교사 및 부모관계( $r=.22, p<.01$ )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4.2.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를 비교한 결과 그 값이 '1'을 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35에서 2.34로 절대 값 '3'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 4.2.1. 관계적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진로결정성에는 부모관계( $\beta=.15, p<.01$ )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교사관계는 진로결정성( $\beta=.13, p<.01$ )에 그리고 목적성( $\beta=.23, p<.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구관계가 진로준비성( $\beta=.22, p<.001$ )과 독립성( $\beta=.19, p<.001$ )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 7%와 1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관계적 변인들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친구관계가 중학생의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에 중요한 자원임이 밝혀졌다. 이는 중학생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진로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관계적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n=467)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R <sup>2</sup>	F	
진로태도성숙	(상수)					
	결정성	부모관계	.15	2.91**	.05	8.33***
		교사관계	.13	2.61**		
		친구관계	-.05	-.90		
	목적성	부모관계	-.04	-.77	.05	7.68***
		교사관계	.23	4.43***		
		친구관계	.01	.29		
	확신성	부모관계	.15	2.87**	.04	6.77***
		교사관계	.09	1.76		
		친구관계	-.01	-.11		
	준비성	부모관계	.05	1.04	.07	10.97***
		교사관계	.02	.42		
친구관계		.22	4.46***			
독립성	부모관계	.10	1.93	.10	16.62***	
	교사관계	.12	2.30*			
	친구관계	.19	3.84***			

\* $p < .05$ , \*\* $p < .01$ , \*\*\* $p < .001$

#### 4.2.2.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가운데 결정성에는 학교생활적응 ( $\beta=.14,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준비성에는 학교생활( $\beta=.17, p<.01$ )과 학교수업( $\beta=.16, p<.01$ )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약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성에서는 학교생활( $\beta=.27, p<.001$ )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고 약 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 및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하는 중학생들이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n=467)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값	R <sup>2</sup>	F	
진로태도성숙	(상수)					
	결정성	학교환경	.02	.34	.05	7.60***
		학교수업	.10	1.67		
		학교생활	.14	2.49**		
	목적성	학교환경	-.10	-1.68	.02	2.35
		학교수업	-.06	-1.05		
		학교생활	.07	1.27		
	확신성	학교환경	.08	1.315	.03	5.04**
		학교수업	.09	1.529		
		학교생활	.04	.776		
	준비성	학교환경	.10	1.73	.13	22.74***
		학교수업	.16	2.86**		
학교생활		.17	3.33**			
독립성	학교환경	-.05	-.92	.08	13.79***	
	학교수업	.07	1.22			
	학교생활	.27	5.09***			

\* $p<.05$ , \*\* $p<.01$ , \*\*\* $p<.001$

4.2.3.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 분석을 한 결과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에서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학교적응 요인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적 요인이 하위 요인들과 학교생활, 학교수업이 진로 준비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중학생의 진로 준비성에서는 학교생활적응( $\beta=.20, p<.001$ )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 $\beta=.19, p<.001$ )와 학교수업적응( $\beta=.18,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모관계( $\beta=-.03, p<.05$ )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인들은 진로준비성에 대해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4> 관계적 요인과 학교적응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	
	$\beta$	$t$	$\beta$	$t$
상수				
부모관계	-0.03	-0.67*	0.06	1.12
교사관계	-0.06	-1.26	0.06	1.20
친구관계	0.19	4.03***	0.18	3.71***
학교수업	0.18	3.63***	-0.01	-.22
학교생활	0.20	3.95***	0.20	3.85***
R <sup>2</sup>	.15		.13	
F	16.69***		13.64***	

\* $p<.05$ , \*\* $p<.01$ , \*\*\* $p<.001$

관계적 변인과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적응이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 $\beta = .20, p < .001$ )과 친구관계( $\beta = .18, p < .001$ )가 중학생의 진로독립성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R^2$ 은 .13으로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중학생 시기의 발달 특성상 부모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들과 관계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 및 지지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진로태도성숙 관련 선행연구들이 소홀한 부분인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 하위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들 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이 시점에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진로교육과 지도가 제공되길 기대하며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관계적 요인(부모, 교사, 친구) 및 학교적응 요인(학교환경, 학교수업, 학교생활)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관계적 및 학교적응의 요인들 중에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결과들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있어서 학교생활, 학교수업, 학교환경 등이 진로준비성에 관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는 준비성과 독립성에서 가장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이경희 & 윤미현, 2011)와 맥을

같이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중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수업 그리고 친구관계가 이들의 진로 준비성과 독립성 등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학교에서 적극적 진로교육과 지도가 행해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지연(2007)의 연구결과는 학교 내 진로교육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둘째, 관계적 요인 중 부모와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진로 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나타났고, 특히 목적성에는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확신성은 부모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져 부모의 지지적인 역할이 자녀의 진로 확신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재희 & 이지민, 2012)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이 친구관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 교사, 친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는 선행연구(김혜래, 2007; 조미형 외, 2006; 이경희, 윤미현, 2011)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관계적 요인과 관련하여 중학생들이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이들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특히, 중학생들의 진로 준비성과 독립성에서는 친구관계가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어 이들이 건전한 친구관계를 통해 진로태도를 더욱 성숙·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를 통해 진로 동아리 활동의 장(場)을 활성화시키며 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요청된다. 또한 부모와 교사는 책임을 갖고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적응 요인들 중 학교생활과 학교수업은 중학생의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미형 등(2006)의 학교생활적응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학교 진로교육이 영향을 미



친다고 발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충한다(이지연, 2007; 황매향, 임은미, 2004). 이 결과는 중학생들이 학교 내 생활과 수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태도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수업과 생활이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넷째,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준비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관계적 변인과 학교생활과 학교수업적응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학교수업 적응은 중학생의 진로준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중학교 단계에 교과과정과 수업내용이 진로교육과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학교수업이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줄이는 경향이 있음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본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고등학교나 대학입시로 몰아가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미흡하게나마 대변한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학교 내 진로교육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결정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강영배 & 김기현, 2004; 이지연, 2007)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의 지원 및 친구들과 관계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진로지도와 교육이 요구된다. 즉, 학교 내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도 전문교사가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

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일반교사들에게도 진로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진로지도를 위해 전문 진로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진로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편하고 실제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학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교과목과 진로태도성숙 그리고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여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교사와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 ■ 참고 문헌 ■

- 강란혜, & 이미정. (201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 지지.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41-953.
- 고복순, & 김영혜 (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2), 29-42.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13).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금지현. (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3), 5-26.
- 김나래, 마림, 김경아, & 이동귀. (2012). 중학생의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4), 1799-1818.
- 김병숙, & 손미나. (2005). 진로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자기효능감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18(2), 172-198.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2000). 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 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변인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호, & 정철영.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4), 119-137.
- 김진숙. (2013).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Y)와 한국 자유학기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23(6), 163-183.
- 김충기. (2003).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혜래. (2007). 중학생의 진로결정 실태와 진로성숙도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13, 51-74.
- 김혜래, & 이혜원 (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28, 33-63.

- 민경애, 정환경, 류위자, & 천성문. (2011).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잠재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상담평가 연구*, 4(1), 1-15.
- 민영순. (1978).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박영신, & 김의철 (2004).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10(1), 135-165.
- 박은주, & 금명자 (2012).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교육연구*, 7(2), 37-55.
- 소연희. (2011). 초등학교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4), 203-220.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진로태도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 전윤경. (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53-65.
- 이지연. (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129-150.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33-154.
-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석민, 임두순, & 송병국. (1991).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요강. 연구보고 RR 91-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경미. (2009). 시설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 및 자립준비도의관계. *상담평가연구*, 2(1), 33-50.
- 정혜정, & 최인실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연구. *상담학연구*, 5(3), 773-791.
- 조미형, 최상미, & 엄태영. (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에착과 학교성

- 활 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81-97.
- 최수미.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2257-2271.
- 한귀녀, 유순화, & 송현아. (2009). 진로장애와 진로포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7(3), 211-235.
- 이기학, & 한종철.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167-189.
- 함승연. (201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성취 목표, 학습 태도 및 학업성취도 실증적 고찰: 교과 연계 진로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韓國水産海洋教育學會*, 24(5), 616-626.
- 황매향, &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urke, R. J., Bristor, J. M., & Rothstein, M. G. (1995). The role of interpersonal network in women's and men'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er Management*, 7, 25-32.
-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 Lynch, M., & Cicchetti, D.(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81-99.
- Farmer, H.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Rooney, G. (1983).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life roles of worker, student, and homemaker for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3), 324-342.
-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 Connecticut: Cengage Learning.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_\_\_\_\_(1974). *Measuring vocational maturity for counseling and evaluation*. Washington, DC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Tuckman, B. W. (1974). An age 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Young, R. A., & Friesen, J. D.(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3), 198-206.

*Received 5 April 2014; Revised 20 May 2014; Accepted 10 June 2014*

## The Stud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related to Relational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s

Jung A Oh<sup>a</sup> · Bu-Hyun Nam<sup>b</sup>

<sup>a</sup>Department of Children's Welfare, Chungbuk University(52 Nesudongro, Heungdukgu, Chungjusi, Chungbuk)

<sup>b</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 Moon University (221 Sunmoonro, Tangjeongmen, Asansi, Chungnam)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five career elements(career decisiveness, goal orientation, confidence,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related to relational(parent, teacher, friend) and school adjustment (school life, instruction, environment) variables. To accomplish this, 467 collected data was passed through correlation, and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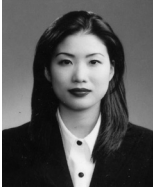
The main finding was that friend's support was highly correlated to and significantly affected career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tudents. School life and instruction were also highly correlated to their career preparation. Parents' and teachers' support affected their career decisiveness. Their school life was an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career decisiveness,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tudents. Generally, friends' support and school life of the student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and independence. From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middle schools need to provide more vocational education, diverse after-school activities, and teacher training to support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208 오정아·남부현 /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attitude maturity.

**key words** : Career Attitude Maturity, Relational Variable, School Adjustment Variable





Dr. OH Jung A finished doctoral course and writes her dissertation in Department of Children's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on Youth Counseling and Youth Welfare.

Address: (302-823) 39 dosol-ro, Daejeon city, South Korea.  
e-mail) musicka@hanmail.net



Dr. Bu-Hyun Nam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SunMoon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 immigrant parents, their parenting,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in school as well as community. she also studies on multicultura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attitude development.

Address: (336-708) 221, Sunmoon-ro, Tangjeong-myeon, Asansi, ChungNam, S. Korea. e-mail) namx0015@hotmail.com